

배합사료 가격해제와 수급현황

배합사료 가격해제에 따라 양축가에게는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하등의 손실을 볼 것이 없으며 이제까지 효율적인 사료를 주문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이 희망하는 대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축가측에서는 합리적 경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조 홍 래
(사료협회 기획부장)

1. 배합사료판매가격 해제

정부에서는 10/7일자로 일부 공산품과 더불어 축산물 및 배합사료가격의 사전 승인제를 해제하고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기로 하였다. 모든 가격은 수급의 원칙과 원가를 감안하여 형성되는 것이 극히 당연하고 또한 무리한 가격통제가 빚어낸 문제점이 허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료의 효율을 개선시키고 단위당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는 배합사료의 적정가격 거래가 보장(선행)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합사료가격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경쟁가격으로 자유화하여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한 바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정부가 과감하게 단행하였던 배합사료가격의 자유화 조치가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축산업계에 미칠 것이며 또한 가격과 품질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전제되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 가격통제 해제조치의 배경

가격통제를 해제하고 자유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원리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물가정책당국에서도 검토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72년 하반기 이후 국제적으로 사료원료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물가정책을 정부가 관철하여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료수급사정과 전망을 무시하고 모든 물가를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긴다는 것은 오히려 가격인상을 자극하여 주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계속 통제를 가하여 왔었으나 배합사료의 경우 1973년도에 세차레에 걸친 배합사료가격인상이 있었고 1974년도에 들어와서는 국내 원료사정이 어분등 단백질 사료를 비롯하여 안정세를 보여왔으며 7월까지만 하여도 국제사료곡물가격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격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 가격해제의 배경이 되었으리라 본다.

또한 축산물간격이 상반기에 비교적 유리하게 거래되었고 또한 현재 국내 사료메이커의 수가 70개이상이나 되므로 이와같은 사료가공업이 독과점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의 경쟁력을 합리적으로 복돋아줄 경우 적정이윤 추구가 겨우 유지되는 선에서 경쟁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내다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료원료의 확보면을 살펴볼때 단가면에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물량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통제를 해제하여도 배합사료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이제까지 정부가 실시한 배합사료의 가격통제는 계수상의 가격안전은 어느정도 이루었다고 보겠으나 사료의 효율면이나 가축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지 못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점도 없지 않았으므로 양축업계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는 것도

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원료가격변동에 따른 사료배합을 변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양축가는 더욱 손실을 보게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올랐던 가격은 다시 고개를 숙일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원가의 하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내릴지를 모른다는 전근대적인 그런 악습은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제나 사료가격은 원가에 의하여 형성되어야지 이제 부터는 배합율조정으로 가격을 조작하도록 제도의 모순을 벗어나서는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국의 배합사료가격은 국내 원료사정에 따라 월별로 크게 오르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원료가격이 오르면 값을 올리고 원료가격이 떨어지면 값을 내릴 수 있어야지 원료가격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물가정책만으로 형식상 가격을 통제하여 놓고 메이커를 괴롭히고 양축가에게는 손해만 보이는 가격사정제를 과감하게 정부가 자유화조치한 것은 획기적인 사실이라고 치하하는 바이다. 앞으로 사료가격은 1월중순부터 사용하게될 원료의 구매단가 및 기타 사료 및 축산의적요인의 변경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가격의 자유화가 사료의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단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합사료가격사정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각 사료공장은 72.8.3조치 당시의 배합사료 가격을 기준하여 일률적으로 가격을 인상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싼 사료를 제조판매한 메이커는 계속 값싸고 질이 낮은 사료밖에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10/7조치로 가격의 자유화가 실현되었으므로 이제까지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메이커와의 판매경쟁상 일부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다.

넷째 : 자유화에 전제되어야 하는 요인

이상에서 언급한바 있거니와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졌다하여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사료가격의 형성은 원가의 구성요인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가

<표 2> 74. 10. 1 현재 배합사료가격 비교
단위 : 원/kg

사 료 별	최고가격	최저가격	평균가격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차
어 린 병 아 리	81.78	80.00	81.66	1.78
중 병 아 리	70.38	68.40	70.28	1.98
큰 병 아 리	61.79	61.05	61.72	0.74
산 란 초 기	70.59	70.00	70.56	0.59
산 란 중 기	66.05	64.00	65.99	2.05
산 란 말 기	61.01	60.75	61.01	0.26
부 로 일 러 전 기	85.52	85.40	85.48	0.12
부 로 일 러 후 기	81.78	81.01	81.18	0.77
젓 메 기 돼 지	94.12	78.17	89.15	15.95
어 린 돼 지	30.26	60.00	71.36	20.26
중 돼 지	68.24	50.20	60.04	18.04
큰 돼 지	61.50	51.72	58.16	9.78
씨 돼 지	51.12	47.00	51.00	4.12
젓 메 기 송 아 지	95.51	71.27	80.93	24.24
중 송 아 지	74.26	60.00	69.14	19.26
큰 송 아 지	57.15	41.50	53.69	15.65
젓 소 사 료	47.50	47.00	47.33	0.50
비 육 전 기	74.28	51.86	61.47	22.42
중 기	64.28	54.00	57.58	10.28
후 기	51.86	51.38	51.56	0.48

첫째로 저렴하여야 하고 둘째로 모든 원료가 충분히 적기(適期)에 확보된다면 배합사료공급에 대하여는 하등 염려할 것이 없다. 농수산부에서는 각시도에 배합사료가격 사정제를 자유화 조치하면서 사료메이커의 생산기피가격조작 및 품질저하를 단속토록 지시하였으나 이와같은 현상은 가격통제하에서 야기되는 현상이지 배합사료거래로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진 현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국에서는 무엇보다도 물량의 적기확보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는 동시에 양축가는 적정규모를 사육하여 축산물의 수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경영의 합리화로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였을때 비로소 효율사료(경제사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배합사료의 원가는 더 이상 절감시킬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가격의 인하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양축가는 축산물을 적정가격으로 판매하여야지 파잉 생산으로 축산물가격을 하락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2. 수급전망

가. 배합사료생산현황

1974. 1~8월까지의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보면 <표 3>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총사료 생산량은 전년대비 1%가 감소한 583,981톤이며 품종별로 볼때 양계용 배합사료는 전년대비 24%감소이고 이를 세분하여 보면 육추용이 22.8% 성계용이 19.3% 육계용 사료가

41.4%씩 각각 감소하였다. 그러나 양돈용은 93.9%로 거의 배가 증가하였고 낙농용은 47.9% 비육우용 사료는 83.6% 기타 농축사료가 70.5%씩 각기 증가하였다. 이를 월별로 비교하여 보면 2, 5, 6월만 전년도 보다 증가된 반면 1, 3, 4, 7, 8등 5개월이 전년도 보다 각각 하락하였다. 이는 2~3월에 부화 중 지등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며 4~5월에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양돈용 사료와 농축사료 생산량이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다.

<표 3>

배 합 사 료 생 산 실 적

단위 : %

월 별	양 계 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우	기 타	계	1973	74/73
	육추용 ¹	성계용	육계용	소 계							
1974. 1	7,167	30,612	3,702	41,481	12,463	9,022	1,177	516	64,659	68,330	94.6
2	6,075	30,113	3,144	39,332	14,539	8,701	1,786	796	65,154	58,325	111.7
3	6,743	30,827	3,630	41,200	14,935	8,774	2,005	3,438	70,352	76,774	91.6
4	6,963	31,017	6,065	44,045	15,023	9,179	2,933	2,669	73,849	77,070	95.8
5	8,114	30,114	7,987	46,215	17,253	9,461	3,254	1,969	78,152	75,257	103.9
6	8,181	31,736	8,974	48,891	16,708	8,045	3,265	707	77,616	72,959	106.4
7	8,163	31,664	9,730	49,557	16,214	8,306	3,265	736	78,078	81,276	96.1
8	7,776	29,586	8,708	46,070	15,512	8,868	4,526	1,145	76,121	79,832	95.4
계	59,182	245,669	51,940	356,791	122,647	70,356	22,211	11,976	583,981	589,823	99.0
1973. 1~8	76,665	304,331	88,614	469,610	63,251	47,563	2,373	7,026	589,823	—	—
74/73	77.2	80.7	58.6	76.0	193.9	147.9	936.0	170.5	99.0	—	—

자료 : 농수산부

나. 옥수수 및 대두박의 국제시세

미국의 옥수수작황은 9. 1현재 전년도 생산 실적대비 11.5% 감소한 4,995백만 bushel(126,865천톤)이었으나 10.1 작황발표를 보면 9월 중의 미국의 옥수수 주산지에 내린 상해(霜害)로 9.1 대비 4.2%가 감소한 4,787백만 bushel(121,590 천톤)이며 금년도 생산계획대비 28.2%나 적은 수량이다. 따라서 이와같이 생산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시카고의 사료곡물의 선물거래가격은 변동폭이 극히 예민하게 변동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가격은 장차 소련과 중공이 1974/75 시간중에 얼마만한 물량을 구매하느냐 여하에 따라 소용돌이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소련의 곡물구매는 드디어 9월하순부터 표면화하기 시작하여 밀

100만톤 옥수수 230만톤을 구매하기에 이르렀고 9/20일에 톤당 한국도착에 \$169까지 하락하였던 옥수수가격은 10/16현재 \$187.80까지 다시 폭등하였다. 따라서 미국정부에서는 국내 곡물시세를 안정시키고자 제 1 단계 조치로 1일에 5만톤 1주일에 10만톤 이상 판매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수출감시제를 실시하고 소련에 판매키로한 330만톤의 곡물수출을 일시 보류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수출규제조치 결과 톤당 10/4일에 \$192.92까지 올랐던 옥수수 가격은 10/9에는 \$183까지 하락하였다가 소련으로의 수출 가능성이 다시 비치자 10/16현재 \$187.80까지 상승하고 있으며 계속 약간씩 상승추세에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국제적인 사료곡물시세가 올라감에 따라 수요가 감소되

〈표 4〉 옥수수 및 대두박의 국제시세
단위 : \$ / %

구분 월별	선적월	옥 수 수			대 두 박		
		본선인 도가격	선입 가	도 착 가	본선인 도가격	선입 가	도 착 가
9. 5	"	137.40	26	163.40	21.10	35	246.10
10	"	145.66	26	171.66	214.50	35	249.50
14	"	148.42	26	174.42	211.65	35	246.65
20	"	143.69	26	169.40	204.50	35	239.50
24	"	149.60	26	175.60	204.50	35	239.50
27	"	152.35	26	178.35	214.95	35	249.95
10. 2	"	156.29	26	182.29	215.50	35	250.50
4	"	166.92	26	192.92	243.00	35	278.00
5	"	162.59	26	188.59	248.50	35	283.50
8	"	158.65	26	184.65	238.60	35	273.60
9	"	157.08	26	183.08	242.23	35	277.23
10	"	159.44	26	185.44	244.65	35	279.65
12	"	157.08	26	183.08	233.10	35	268.10
15	"	160.62	26	186.62	247.50	35	282.50
16	"	161.80	26	187.80			

자료 : 한국사료협회 <로이터 테렉스>에서

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수요의 격감보다는 생산량이 수요에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료품목의 국제시장이 가격은 위면 위였지 하락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 국제주요사료시세

1974. 10. 15현재 주요단미사료의 도매시세를 보면 전월 15일 대비 곡류사료는 4~7% 임박 호마박 및 채종박 등 박류가격은 2~4% 선에서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맥강과 소맥 피가 포함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탈지강이 4.1% 상승하였다. 그러나 어분은 상품, 중품 모두 포함세를 이루고 있는바 앞으로 1974년도 산 추곡수매가격이 결정되고 1975년도 정부 관리양곡가격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여하에 따라 국내 사료 품목 가격이 변동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11~12월에 선적할 미국산 옥수수나 또는 태국산 옥수수 구매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국내박류 가격은 약간씩 상승되고 있으나 국산박류가 계절적으로 보아 다량 생산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또한 어분가격이 계속 포함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곡류시세

에 비하여 변동폭이 약간 둔화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표 5〉 주요 단미사료 도매시세표
1974. 10. 15 현재 단위 : 원/kg

종 별	73. 10	1974		대 비	
		9/15	10/15	74. 10. 15 73. 10	74. 10. 15 74. 9. 15
옥수수(도입)	55.00	66.42	69.36	126.1	104.4
(국산)		75.00	80.00		106.7
		(115)	(115)		
대 두 박	126.00	127	127	100.8	100.0
임 박	102.00	82.20	85.00	83.3	103.7
호 마 박	102.00	82.00	84.00	82.4	102.4
채 종 박	84.00	52.00	54.00	64.3	103.9
아 마 박	85.00	75.00	70.00	82.4	93.3
맥 강	—	41.67	42.00	—	100.8
탈 지 강	35.00	41.30	43.00	122.9	104.1
소 맥 피	18.70	20.80	21.00	112.3	106.0
어 분(상)	150.00	128.0	128.00	85.3	100.0
" (중)	114.00	107.5	108.00	94.7	100.5

자료 : 한국사료협회

라. 원료의 구매전망

원료수급면을 감안할때 현재 확보된 물량으로 75. 1월상순까지 공급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1975. 1중순부터 공급하여야 할 물량은 10월중에 구매하여 11~12월에 선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물량면에서는 1차로 5만톤의 옥수수와 1만톤의 타피오카를 11~12월 까지 선적하고 3월부터 사용할 옥수수 10만톤과 수수 2만톤을 75. 1~3월에 알맞게 선적할 수 있도록 적기구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10/17 현재 구매 예상단가는 한국 도착에 태국산 \$172 미국산 \$180선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더욱 불안감이 감돈다. 아무튼 물량의 확보는 가능시되므로 염려할 것이 없겠으나 단가면에서는 종전가격보다 20%가 올라간 가격이므로 1975. 1월부터는 배합사료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전망되는바 이와같은 원료사료의 국제합향과 우리의 처지를 잘 인식하여 어떠한 길을 택해야 보다 잘 살 수 있는가를 양측가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여야 될 때가 왔다고 본다.